

일본 치바현의 배리어 프리 현황과 시사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배리어 프리(Banier Free)란 '장벽이 없는' 또는 '장애물이 없는'이라는 뜻으로 건축분야에서는 '장애인과 노인등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1950년대 미국의 공민권 운동에서 시작되어,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설계(Banier Free Design)」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검토한 이 보고서에서는 건축용어로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제거하자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 사회 참여를 곤란하게 하는 사회적, 심리적, 제도적인 장벽의 제거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발전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의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장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주거와 이동환경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는 설계기준을 의미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배리어 프리 도시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의

도시-치바현-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배리어 프리 도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일본 배리어 프리의 현황

일본에서는 90년대에 들어 배리어 프리에 관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관심이 전개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고령자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편한 상품 및 서비스라는 것을 전제로 '보편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개선 또는 특수화된 설계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환경과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과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배리어 프리는 원래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인 데 비해 유니버설 디자인은 처음부터 제거되어 있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으로, 배리어 프리에 비해 단계 진보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안정되고 쾌

적한 보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을 정해놓고 있다.

- ① 공평한 이용(Equitable Use) :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이용 가능할 것
- ② 이용의 유연성(Flexibility in Use) : 개인적인 선호나 능력 등 다양한 범위에 적용될 것
- ③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Simple and Intuitive Use) : 이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 능력의 수준에 관계없이 디자인의 이용이 이해하기 쉬울 것
- ④ 인지 가능한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 주변상황이나 이용자의 감각능력과 관계 없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
- ⑤ 실패에 대한 관대함(Tolerance for Error) :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따르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 할 것

Social Services Highlight

- ⑥ 신체적 노력의 최소화(Low Physical Effort) : 효율적이고 기분 좋게 하며, 최소한의 피로를 요할 것
- ⑦ 접근이나 이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적절한 사이즈와 공간이 이용자의 체격이나 자세, 이동능력과 관계없이 이용하기 쉽게 제공 될 것

일본의 지방 정부는 1990년 미국에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차례로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중앙 정부는 1994년에 「고령자, 신체장애자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하트빌딩법)을 만들었으며, 2000년에 「고령자, 신체장애자의 공공 교통 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한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교통 배리어 프리법)을 만들었다.

□ 하트빌딩(heart-building)법

(노인, 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

하트빌딩법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보다 나은 자립과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양질의 건축물을 키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3년 4월 1일 일정 요건의 시설들이 배리어 프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고령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본격적인 정부의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트빌딩법률에 부합하는 배리어 프리 건물은 '하트빌딩인증마크'가 교부되며, 공익시설을 포함하는 인정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승강기, 폭이 넓은 복도, 기울기가 완만하고 손잡이가 설치된 계단,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화장실 등의 정비 비용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가 국고보조를 실시한다. 그 밖에 세계상의 우대조치나 저금리의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 교통 배리어 프리법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배리어 프리법은 2000년 11월 15일 철도역을 중심으로 항구, 공항 등에서 이동할 경우 신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법률은 고령자 및 신체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을 할 경우에 이용성, 안전성, 활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국토교통성, 총부성, 경찰청이 배리어 프리 시책의 기본방침을 작성하고, 시정촌(시, 마을)이 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항공여객터미널, 철도차량, 버스, 여객선, 항공기 등의 배리어 프리화 및 역 등의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정지구에 대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기본구상을 작성하여 배리어 프리를 중점적,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교통사업자가 역, 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을 새롭게 건설할 경우, 항공기 등을 새롭게 도입할 경우는 배리어 프리화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안심하고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역 시설 등의 배리어 프리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치바현의 복지도시 만들기 조례

일본의 치바현은 1871년에 몇 개의 지역이 합쳐져 탄생하였고, 수도권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1983년에 인구가 500만 명, 2002년에 인구 600만 명을 돌파하여 2005년 현재 6,056,159명(2005년 10월 1일 國勢調査速報)을 기록하였다. 이는 일본 총 인구 127,756,815명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평균연령은 40.3세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젊은 도시이다. 치바현은 사방이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면적은 5,156.61km²로 전국에서 28번째로 크며, 이는 동경도와 가나가와현을 합친 것보다 넓은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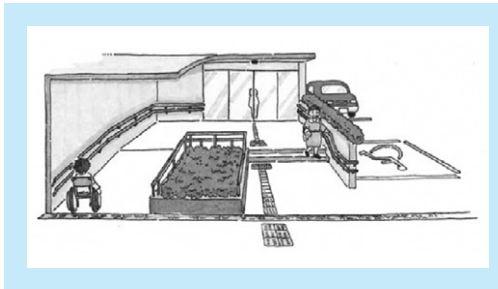
치바현에서는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치바현의 복지도시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쉬운 시설 준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행정과 시민, 사업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병원, 극장, 집회장, 전시장, 백화점, 공동주택,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공공교통기관 시설, 도로, 공원은 공익시설로서 본 조례의 정비대상이 되며, 공익시설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경우 적합증을 교부한다. 또한 공익시설 중에서도 공성이 높은 시설을 종별 및 규모에 따라 특정 시설로 정하여 특정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수하는 경우, 시설소유자는 이를 통지해야 한다. 조례에서 지정하는 배리어 프리 정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부지 내 통로 접근

- 통로 및 경사로의 표면은 미끄럽지 않게 할 것
- 통로 및 경사로의 폭은 120cm 이상으로 할 것
- 부지 내 통로는 시각장애인유도용 블록을 설치할 것
- 출입구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것
- 경사로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폭은 120cm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12이하로 할 것
- 주차장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휠체어 사용자 주차시설임을 표시할 것

그림 1. 주차장, 부지 내 통로접근의 배리어 프리



② 복도, 계단, 거실 출입구

- 복도
- 복도의 표면은 미끄럽지 않게 할 것
- 복도는 폭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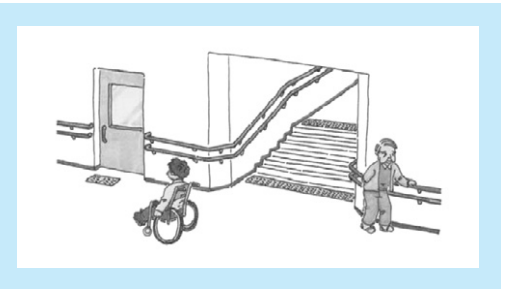
- 계단

-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
- 주요 계단은 꺾임형 계단을 만들지 않을 것
-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노면과 구별하기 쉽게 할 것
- 계단에는 시각장애인 주의환기용 블록을 설치할 것

- 거실출입구

- 거실 출입구는 폭이 80cm 이상으로 할 것
- 거실 출입구의 문은 자동문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 개폐하기 쉬운 것으로 할 것
-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되는 단차를 만들지 말 것

그림 2. 복도, 계단, 출입구 배리어 프리



③ 승강기

- 승강로비의 폭은 각 150cm 이상으로 할 것
- 승강기 출입구의 폭은 80cm 이상으로 하고,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적을 1.83m² 이상으로 하며, 깊이를 1.35m 이상으로 할 것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 승강기 내부에는 도착예정지 및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손잡이 승강기 내부의 문의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을 설치할 것

그림 3. 승강기 배리어 프리



④ 화장실

- 휠체어 사용자용 변기를 설치할 것
- 변기 및 휠체어 사용자용 변소의 출입구는 폭이 80cm 이상으로 하고, 문은 휠체어 사용자가 개폐하기 쉬운 것으로 할 것
-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세면기를 설치할 것
- 손잡이가 달린 소변기를 설치할 것

⑤ 관람석

- 극장이나 영화관 등의 관람석은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공간을 마련할 것
- 출입구에서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공간까지 통로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할 것
-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공간이 마련되었음

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그림 4. 화장실 배리어 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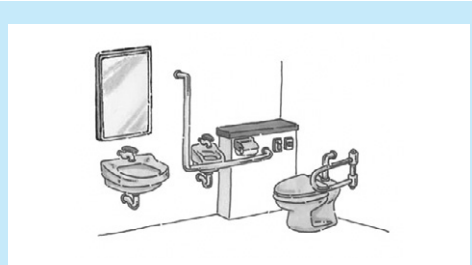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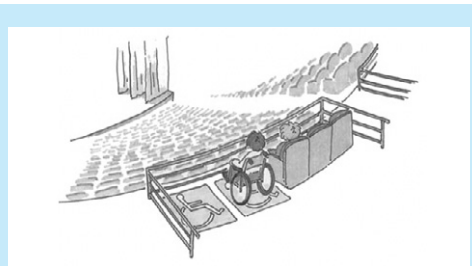


그림 5. 관람석의 배리어 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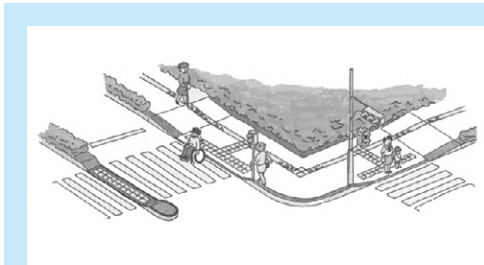


⑥ 도보

- 도보의 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고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할 것
-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이나 역사 등을 연결하는 도보, 또는 시각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도보에는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을 설치할 것

Social Services High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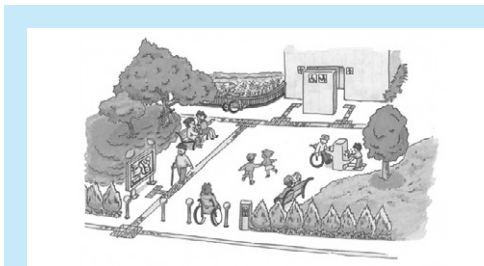
그림 6. 도보의 배리어 프리



⑦ 공원

- 출입구는 폭 1.2m 이상으로 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쉽게 할 것
- 공원로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할 것
- 공원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로 하고,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할 것
- 공원로에는 필요에 따라 전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를 하고, 시각장애인유도용 블록을 설치할 것
- 화장실, 식수대 등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할 것

그림 7. 공원의 배리어 프리



또한 치바현은 배리어 프리에 관한 조례 규정과 함께 치바 배리어 프리 지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배리어 프리 지도는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가 외출할 시에 안심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여러 시설의 배리어 프리 정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배리어 프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목적에 따라 배리어 프리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입력하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 통역자가 있는지 또는 난청자용 전화와 팩스이용 유무,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주차장, 출입구, 승강설비, 화장실 등의 설비유무, 아동 동반자의 경우 수유실, 탁아실의 설비 유무와 유모차 대여가 가능한지 등 원하는 배리어 프리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본 일본 치바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배리어 프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고, 정부의 관심과 시민의식이 상당수준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문턱 없애기', '현관, 복도, 계단, 욕실 등에 손

1) 치바 배리어 프리맵, <http://www.pref.chiba.jp/pbbfmap/index.html>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잡이 붙이기', '출입구 경사로 만들기' 등의 실제적인 배리어 프리를 위한 노력들과 법·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관심과 시민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배리어 프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해 배리어 프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은 국가의 법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바현의 복지 도시 만들기 조례'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의 외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리어 프리 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내에서 스스로 배리어 프리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누구나 본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주민 전체가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 등의 특정집단의 복지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와 관련한 문제로 무엇보다 지역주민과의 합의 과정을 통한 실현을 중요시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GSST](#)